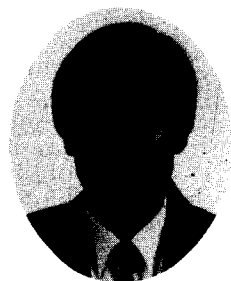


# '87年 國內外 經濟與件 變化와 우리의 對應



曹 琮 和

(産業研究院 責任研究員·經博)

지난해 우리 經濟는 물가안정의 기초가 지속된 가운데, 높은 經濟成長과 經常收支의 黑字를 시현하는 등 그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경제 운용의 세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였다. 이는 3低現象으로 표현되는 지난 해 世界經濟의 與件變化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作用했다는 점 외에도 그동안 우리 經濟가 키워왔던 성장 잠재력이 표출된 결과일 것이다.

'87年에도 우리 經濟는 好調의 對外與件 지속과 함께 순조로운 經濟成長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國際貿易環境의 惡化나 美國의 元貨切上壓力 등 不利한 與件도 없지 않아서 이러한 與件變化에 대한 政府和 企業을 망라하는 모든 經濟主體의 적절한 對應이 요망되고 있다.

## I. 世界經濟의 與件

### 3 低現象, '87年에도 持續될듯

低油價, 低金利 그리고 달러貨 弱勢 등 지난 해 世界經濟의 與件變化를 특징지운 이른바 3低現象은 올해에도 그 基調에 큰 변함이 없이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86年中 급격한 변동을 거듭하며 하락세를 보였던 國際原油價는 今年中 배럴當 17달

러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의 평균인 배럴當 15달러보다는 2달러 정도 오른 수준이지만 '85年中의 배럴當 28달러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낮은 水準이다.

이처럼 '87年中의 國際原油價가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世界石油市場은 근본적으로 供給能力이 수요를 하루 1,000萬배럴 이상 상회하는 공급과잉의 상태이다. 둘째, OPEC은 작년 12월 총회에서 배럴當 18달러의 固定價格制를 금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決定한 바 있으나 이 制度의 定着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① 금년들어 사우디 등에 의해 고정가격으로 체결된 판매계약들을 보면 계약기간이 단기에 그쳐 사실상 현 물가격판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② 근본적으로 세계석유시장이 판매자시장 (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시장 (buyer's market)으로 바뀐 상황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가격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중 國際油價가 작년보다는 다소나마 오른 수준에서 훨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첫째, 그동안 油價의 暴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OPEC 및

非OPEC産油國들이 油價安定을 목적으로 石油供給을 調整하기 위한 減産努力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그동안의 低油價와 世界經濟의 成長勢 回復 등에 影響받아 石油消費는 소폭이나마 증가함으로써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계, 선진국들도 유가폭락이 外債危機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을 야기시키고 석유관련산업의 침체 및 이에 따른 실업증가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음에 따라 油價의 安定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난 1~2년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는 國際金利는 今年中 작년보다 소폭하락한 수준에서 대체로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金融專門家들은 國際金利의 움직임 을 주도하는 美國金利가 '87年中 年平均으로 '86年보다 0.5~1.0%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라임레이트의 '87年平均水準은 '86年の 8.3%에서 7.3%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美國金利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유로달러金利도 하락, 3개월물유로달러 금리의 경우 '86年 평균인 6.6%로부터 '87년에는 평균 6.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金融政策의 緩和基調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① 油價의 安定 등을 바탕으로 美國物價의 安定基調가 정착됨으로써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더욱 중점을 둔 금융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② 累積된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서는 財政緊縮이 요망되는 상황하에서 景氣 부양을 위한 금융완화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동안 金利上昇의 要因으로 作用하였던 財政赤字가 '87會計年度中 前年比 400億달

러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金利上昇 壓力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開途國外債 償還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나, 대외순채무국으로 전략한 美國의 대외 이자지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美通貨當局은 金利를 낮은 水準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本과 西獨 등 주요국 金利는 今年中 물가안정기조의 정착과 안정성장기조의 지속에 따라 대체로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5年 2月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온 달러貨의 價値는 '87年中에도 대체로 弱勢를 持續할 것으로 전망된다. '86年中 달러貨의 價値는 日本 엔貨, 西獨 마르크貨 등에 대해 20% 이상 큰폭으로 하락하였고 실효환율 기준으로는 13% 이상 하락하였다. 이 같은 달러貨의 弱勢가 今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① 미국의 무역적자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감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② 美國이 最大債務國으로 전환됨에 따라 國際外換市場에서 달러貨에 대한 信認度가 크게 低下된데다 ③ 美國經濟의 '87年 經濟展望이 불투명함에 따라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87년에는 달러貨가 弱勢를 지속한다 하여도 그 하락폭은 지난 1~2년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鈍化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러貨價値가 점차 적정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선진국간에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달러貨 이외의 통화가치는 내년중에도 달러貨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으나, 그동안 큰 폭으로 절상된 日本 엔貨나 서독 마르크貨 보다는 여타 선진국통화를 비롯해 대만, 한국 등 대미무역흑자를 記錄하고 있는 신흥공업국

의 통화가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換率・國際金利・油價 展望<sup>1)</sup>

		1985	1986	1987
換 率	¥ / \$	238.5	167.0	150.3
	DM / \$	2.943	2.175	1.977
國際金利	美Prime rate (%)	9.93	8.33	7.26
	유로달러金利 (%)	8.28	6.68	6.88
油 價	달러 / 배럴	27.2	15.0	17.0

註: 1) 平均值. 資料: DRI, WEFA

### 世界經濟, 건실한 성장세 보일 듯

低油價, 低金利 및 달러貨 弱勢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은 3低基調의 持續을 바탕으로 '87年中 世界經濟는 '86年보다 높은 3% 정도의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86年の 世界經濟는 美國의 貿易收支 惡化에 따른 美國經濟의 成長制約, 엔貨強勢가 日本經濟에 미친 디플레效果 등에 영향받아 成長勢가 前年에 비해 鈍化되어 先進國이 2.5%, 開途國이 1%의 대체로 저조한 成長率을 기록하였다.

'87年中 世界經濟는 '86년에 저조했던 美國과 日本의 成長率이 3%와 3.3%로 높아지고 유럽主要國들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데다, 開途國經濟의 成長率도 '86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世界經濟 全體의 成長率은 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國別로 보면 먼저 美國經濟는 '87年中 '86年보다는 다소 높은 3% 내외의 實質GNP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美國經濟의 成長勢는 海外部門에 의해 主導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달러貨 價値下落的의 效果에다가 여타선진국들의 內需擴大努力이 가세하여 '87年中 美國의 輸出增加率은 '86年の 3%를 크게 상회하는 17%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지난 해의 12%에서 3

%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企業投資나 民間消費支出 등 內需部門은 投資稅額控除制度의 폐지와 높은 消費者負債比率 등에 영향받아 강한 伸張勢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6年中 엔貨의 強勢로 인한 輸出不振과 企業收益의 악화로 크게 침체된 바 있는 日本經濟는 '87년에는 輸出의 지속적인 不振에도 불구하고 內需擴大의 진전에 힘입어 成長勢가 회복됨으로써 실질GNP 成長率이 '86년의 2.5%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첫째, 엔貨強勢의 플러스效果인 物價安定과 그에 따른 實質購買力의 증가를 바탕으로 民間消費需要가 건실한 伸張勢를 보일 것이고, 둘째, 낮은 住宅 金利와 建設資材價格의 安定 등에 힘입어 民間住宅投資도 好調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셋째, 民間設備投資도 金利下落, 換率安定 등에 영향받아 첨단기술산업 및 서비스產業등을 中心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넷째, '87年中 엔貨의 價値는 '86年과 같은 급상승세를 보이지는 않고 달러當 150~160엔 수준에서 安定될 것으로 보여 해외부문의 成長制約要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西獨經濟는 '87年에도 지난 수년간의 安定成長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86年中 실시되었던 租稅減免의 效果가 '87年中 本格的으로 나타나고 고용증대로 근로자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企業投資도 政府의 각종 稅制 惠澤과 低金利 등에 힘입어 그 增加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의 主要國들도 '87年中 대체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86年中 國別, 地域別로 상당한 成長率

隔差를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成長勢가 大幅鈍化된 바 있는 開途國經濟는 '87년에는 先進國의 景氣回復과 油價上昇 등을 背景으로 平均成長率이 '86년의 1.0% 정도에서 2.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產油開途國들은 '86年中 油價暴落으로 인한 石油輸出收入의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87년에는 소폭적인 유가회복으로 다소 成長勢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非石油 1次產品輸出國들은 이들 품목의 전반적인 가격약세지속으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87년에도 對外與件에 큰 變化가 없는 한 한국·대만은 8% 이상의 高成長을 지속하고 홍콩, 싱가포르 경제도 각각 86년보다 높은 6%, 3% 정도의 성장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國際貿易環境, 改善되기 어려워

지난 수년간 급속히 악화되어 온 國際貿易環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改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先進國 保護貿易主義強化의 根本原因인 先進國 産業構造調整이 不振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美國의 막대한 무역적자도 당분간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美國의 무역적자와 日本, 西獨의 막대한 무역흑자로 특징지을 수 있는 先進國間 무역불균형은 지난 해의 달러貨價値 急落에도 불구하고 더욱 擴大되어 왔다. 이에 따라 美國은 무역적자축소를 목적으로 수출증대, 수입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美國의 政策은 先進國間 또는 美國과 開途國間의 무역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 美國과 EC는 최근 農産物 補助金支給問題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美國은 日本과 西獨에 대해 對美輸出을 늘릴 수 있도록 景氣浮揚策을 實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美國은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市場을 開放하고 美國의 知的所有權을 보호하도록 強力한 壓力을 가하는 한편 환율의 平價切上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地域主義 또는 雙務主義의 擴大도 국제무역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美國은 캐나다, 이스라엘과의 自由貿易協定締結, 카리브沿岸國에 대한 특혜부여 등 GATT體制의 根幹을 이루어온 多者間主義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EC, ASEAN, 걸프沿岸國 등도 域內結束을 더욱 공고히 하여 배타적인 성격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國際貿易環境이 惡化趨勢를 지속하자 國際貿易規範의 再定立을 目的으로 한 新라운드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간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날카로운 이해대립으로 인해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비록 신라운드가 최종 타결되더라도 서비스, 농산물 및 첨단기술제품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 분야를 둘러싼 각국간의 무역마찰이 현저히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II. 우리經濟의 課題와 對應

지난 해 우리經濟는 물가안정이 지속된 가운데 국제수지면에서는 經常收支가 대폭적인 흑자로 전환되었고 實質GNP成長率도 12%를 넘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대기록의 背景에는 物價安定基調를 가져온 통화·재정정책이나 기업의 체질개선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國際金利下落, 低油價, 달러貨弱勢 등으로 나타난 國際經濟의 與件이 우리經濟에 유리하게 作用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今年에도 우리經濟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3低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國 및 日本經濟의 成長勢 回復, 恩貨強勢의 持續 등으로 輸出이 계속 好調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內需도 企業設備投資를 中心으로 堅實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好調의 成長勢가 전망된다. 政府를 비롯,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今年度 우리經濟의 實質成長率을 8% 이상으로, 또 경상수지 흑자폭도 50억달러 정도로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적인 결실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가계 그리고 업계의 변모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今年度 우리經濟가 풀어나가야 할 課題로는 어떤 것 들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예상되는 경상수지의 흑자지속은 해외부문을 통한 通貨增發壓力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過利流動性은 인플레이壓力의 가중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즉 국제수지의 흑자는 外貨의 受取分이 支給分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초과분은 금융기관이 國內通貨를 대가로 매입하게 되므로 그 만큼 국내통화를 증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고 적정통화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輸入을 擴大하거나 資本輸出을 增大하는 등의 政策을 講究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外債를 안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을 경상수지흑자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수입확대나 자본수출보다는 장단기 자본도입의 억제나 불리한 조건으로 들여 온 外債의 조기상환 등을 통한 해외부문 자체내의 통화흡수노력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환수 대책으로 경상수지의 흑자

에 따른 통화증발을 모두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운용, 민간부문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經常收支黑字가 對美黑字와 對日赤字로 압축되는 지역별 불균형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약 7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 對美貿易黑字는 금년에는 더욱 擴大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美國側으로부터의 각종 市場開放壓力 및 對韓輸入規制壓力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今年에도 더욱 強化될 전망이다. 이러한 美國의 보호주의 경향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對美輸出의 우리나라 총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對應方案으로서 먼저 對美輸出增大에 最善을 다하는 한편 우리의 수입개방 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對美수입증가를 받아들이고, 對日輸入品目的 輸入品을 美國으로 전환함으로써 美國의 對韓輸出을 늘리는 努力을 기울이는 한편, 대미 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든가 301條 타결내용에 대한 검토와 약속사항의 이행을 추진하는 등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對日貿易收支는 매년 그 赤字가 심화되어 그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日貿易赤字가 날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의 對日依存度가 너무 큰 데 기인하고 있다. 즉 우리기업들이 수출용 원자재와 부품, 소재, 원료, 산업설비 등을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輸出增加가 對日 輸入增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노정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은 부품, 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연구 및 개발투자를 통한 기술수준의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개발 상품에 대한 시장확보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부터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日本市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집중 개발하는 등의 對日輸出擴大方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經濟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課題는 美國의 원貨에 대한 切上壓力이 加重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그 충격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흡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수출채산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원화절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經濟가 아직도 450億달러에 달하는 對外債務에 시달리고 있어서 日本이나

대만등 構造的인 國際收支 黑字國과는 그 立場이 크게 다르다는 점, 힘에 겨운 國防費負擔이 불가피하다는 점, 日本·西獨·대만 등이 아직도 莫大한 對美貿易收支의 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원貨의 平價切上만으로는 美國의 貿易收支 改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美國側에 인식시킴으로써 원貨의 平價切上壓力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원화의 切上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으로서도 원貨切上에 따른 가격경쟁력 弱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經營合理化를 통해 코스트를 절감하는 한편 품질의 고급화·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을 強化해 나감으로써 원貨의 切上에 따른 충격을 企業自體內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정없이 발전없고 발전없이 민주없다**